

최종편집 : 2021-10-15 21:57 (금)

로그인 회원가입 BBS불교방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세검색



전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스포츠 불교 국제 전국 | BBS 인터뷰 BBS 칼럼 BBS 취재수첩 BBS PLAZA 인사/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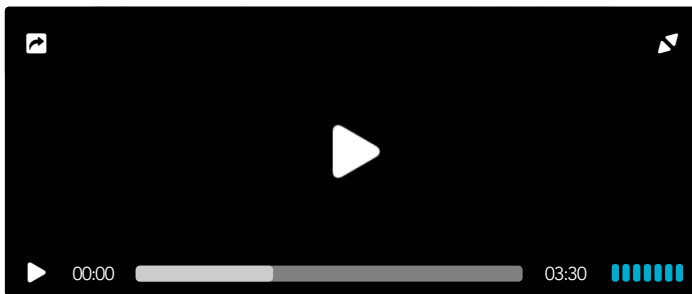
홈 > 불교

"산산조각 나면, 산산조각 얻지"...천리순례 고행의 발

박준상 기자 | 입력 2021.10.05 13:44 | 수정 2021.10.06 02:39 | 댓글 0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지리산 넘어 전북 남원으로'



영상이 뜨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천리순례단의 걷기 여정이 전남에서 전북으로 이어지며 어느덧 100Km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험준한 고갯길을 통과한 순례자들은 물집 잡힌 발에 전해지는 고통을 참으며 정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순례길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박준상 기자가 내딛는 발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최신뉴스

- 불교 | 백양사, 독거노인세대에 연인 도시락 680개 기탁
- 경제 | 아파트값 뛰자 오피스텔 가격도 초강세...매매·전...
- 정치 | 문 대통령, 日 기사다 총리와 첫 통화..."강제징용 ...
- 사회 |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전 5개월 성남시 고문번호...
- 사회 |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11시간 압수수색

포토뉴스



인기뉴스

- 1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마지막 거리두기...
- 2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나온 '광화대군'
- 3 사적모임 인원 완화...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
- 4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부울경 토론회 + 이준석의 특
- 5 [코로나19]부산 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10명, 다중이용

지리산 노고단 고갯길 넘어 전복 남원으로 향하는 상월선원 천리순례단

기자

별빛이 하늘을 장엄한 해발 천 미터 노고단 고지에서 새벽 예불이 봉행됩니다.

<호산스님 / 상월선원 만행결사 총도감>

"순례의 일심발원이 전법중흥을 이루고 이웃과 사회의 아픔을 사르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행정구역상 남도에서 북도로 이어지는 지리산 자락길,

썰떡 고개를 발길로 넘어선 순례단이 지금까지 걸어온 거리가 100Km를 훌쩍 넘었습니다.

<선광스님 / 하남 성불사 주지>

"오르막이니까 사람인데 힘 안들겠습니까. 올라오면서 차 소리 들어보니까 차도 소리를 많이 내면서 올라가는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하고 견습니다."

<능엄스님 / 백장암>

"오르막을 오히려 천천히 걸으니까 더 쉬운 것 같고, 쉴 때마다 양말까지 벗는게 요령입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아릿한 통증이 발을 감싸고, 물집이 잡힐 때마다 불인 반창고가 벌써 발바닥 전체를 덮었습니다.

정신력으로 건디는 고된 이 길이 어쩌면 2600년 전 맨발의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인도 전역을 만행한 길과 이어져 있다는 생각에 환희심을 내봅니다.

<연화지 / 일반 참가자(경남 진주)>

"중간중간에 많이 힘들었지만 부처님 염불하면서 왔고, 관세음보살 염불송을 계속 하면서 힘든 순간순간을 이렇게 고비고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김용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발가락 2개는 이미 물집이 나서 자연에 선사를 했어요. 한 5일 정도 걸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또 불교중흥이라는 큰 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염원을 어떻게 앞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것인가."

힘준한 산을 넘으면서도 잘 버텨준 것에 고마움을, 또 앞으로 가야 할 길 역시 잘 해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스스로에게 보냅니다.

<정충래 /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지난해 만행결사 예비순례때) 그때 폭우를 만나서 정말 고생했어요. 발이 특히 부르트면서 물집이 생기기 시작해서 삼일 동안 100Km 걷는데 고생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에 조상님께도 감사드리고 부처님께도 감사드리고 내 발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화엄사에서 이번 순례길을 응원한 정호승 시인의 말입니다.

6 [코로나19] 18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



7 울산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유지..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운영.. 가을 행락철 특별방역 추진

8 [속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



BBS칼럼

전경윤의 '세상살이'

전영신의 '사산'

신두식의 '공감노트'

배재수의 '크로키'

이현구의 '스윗 스팟'

선임기자 칼럼 NEW

월 1만원 이상, 방송포교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

가입문의 1855-3000

ARS 후원 060-800-8000
(한 통화 5천원)

흙터와 물집으로 조각날 듯 보이는 고행길의 맨발은 수행자들의 결사 의지를 더욱 굳건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남창오 기자



지리산 시암재 숙영지에서 새벽 예불 봉행 중인 스님들



지리산 노고단 고갯길 넘는 사부대중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0



반대
0

당신만안본뉴스

이낙연 전 대표 "결선투표 필요, 대장동 의혹에 대한 ...
'큰스님의 아멘' 각계 반향... "벽을 허무는 큰 울림"
[교육기획] "선생님! 고맙습니다"...경기 화성 남양고
[코로나19] 서울 노원구 병원 관련 28명 확진...병원...
국민의힘, 오늘 광주에서 첫 TV토론..5,18묘역 참배도
문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 강력 추진"
윤건영 "이준석 대표, 여당(이재명-이낙연) 이간질 그...

이낙연 전 대표 "결선투표 필요, 대장동 의
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지켜봐야 한다는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백양사, 독거노인세대에 연
앞 도시락 680개 기탁



아파트값 뛰자 오피스텔 가
격도 초강세...매매·전세



문 대통령, 日 기사다 총리
와 첫 통화..."강제징용 문제



김우수, 검찰총장 임명 전 5
개월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성
남시청 11시간 압수수색



"문 대통령 기사다 일본 총
리, 첫 통화"

BBS불교방송(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 대표전화 : 02-705-5114 | 팩스 : 02-705-52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재수
제호 : BBS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59 | 등록일 : 2010-06-03 | 발행일 : 2001-09-01
발행인 : 박형수(중하) | 편집인 : 전경윤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si.co.kr

POWERED BY 